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8
3. 품목 및 산업 동향	13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21년 반출 공컨테이너 불량을 감소
- 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1·1단계 1구역 운영개시
- 평택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본격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옌텐항, 항만 정체 개선
- LA항과 롱비치항, 항만 무공해차량 인프라 구축에 2,500만 달러 유치
- 앤티워프항, 코로나19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 향상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컨테이너선 운항 정시율 2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
-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골재수급 개선대책 확정
- 인도네시아,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석탄공급 차질 우려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2021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실시¹⁾

- 부산항만공사는 7월 1일부터 '2021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해당 조사는 부산항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19년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됨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반영된 '20년 12월 말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산과 창원 소재의 해운항만산업체 3,500개사를 표본 추출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② 부산항, '21년 반출 공컨테이너 불량률 감소²⁾

- BPA는 지난 6월 14일부터 2주간 '21년 상반기 부산항 공컨테이너 실태조사를 실시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산세관 등 관련 정부기관 및 컨테이너 수리업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21년 상반기 공컨테이너 불량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0%p 감소한 13.9%로 나타남
- 조사 대상은 부산항에서 반출된 공컨테이너 38,361개 중 2,589개(6.7%)를 표본조사 하였으며 그 중 361개가 불량으로 판정되었으며 유해외래생물은 발견되지 않음
- 올해 상반기 공컨테이너 불량률이 감소한 이유는 공컨테이너 수급 상황 개선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올해부터 개편된 공컨테이너 불량 기준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는 불량 체크리스트가 세분화 및 계량화 되면서 기존 5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재분류됨
- 항만공사는 해당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및 선사 등과 공유하여 자발적인 공컨테이너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 밝힘
- 또한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분석하여 해양수산부 간이검사 및 실태조사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01.),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436&page=2&mCode=MN1445>(2021.07.16.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0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447&mCode=MN1445>(2021.07.16.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1·1단계 1구역 운영개시³⁾

-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1·1단계 1구역의 입주기업인 (주)케이윈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함
- (주) 케이윈은 목재 수입·유통 기업으로 '19년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9년 10월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함
- IPA는 '18년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19년 9월 총 8개 입주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입주 예정 기업은 총 8개 기업으로 '21년 하반기 내로 6개 기업이 입주하고 '22년 상반기 내 나머지 2개 기업이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 인천신항에 인접한 복합물류 클러스터 지역의 입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신규물동량 창출과 물류비용 감소 등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②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대상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으로 중고차 적체 완화 및 수출 물동량 정상화⁴⁾

- ☞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약 90%를 처리하는 중고차 수출 허브항만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선복량 부족으로 적체화물 증가, 수출실적 감소세를 기록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고차 수출업체는 자동차 신차 계약물량에 우선순위가 밀려 중고차 수출 선복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 이에 인천항만공사(IPA)는 중고차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년 12월부터 '21년 5월까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부두 사용료를 면제하고 중고차 선적을 유도함
- 또한 인천내항의 TOC와 협조하여 약 21만㎡에 이르는 신규 야적장을 중고차 업계에 긴급 제공하였음
- 이 밖에도 수출용 중고차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고차 물류관리 시스템을 '20년 11월에 개발하여 야적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적시간을 절감함

☞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한 다양한 정책들에 힘입어 감면정책을 시행한 6개월 간 중고자동차 수출은 최고 실적을 기록함

- '20년 12월부터 '21년 5월까지 인천항의 중고자동차 수출실적은 15만 2천 대로 동기간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던 14만 3천 대를 상회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0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151&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1.07.15.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0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140&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 (2021.07.15.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5G MEC 원격제어 크레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⁵⁾

 여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전남도, LG U+,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등과 5G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원격 크레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 5G 인프라 구축과 야드크레인 2기를 자율주행이 가능한 원격제어 크레인으로 연내 개조해 실제운행 테스트 후 하역작업에 투입할 예정임
- 5G MEC 기술은 데이터를 백본망(backbone network)⁶⁾이나 데이터센터까지 전송하지 않고 기지국, 교환국 등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의미함
- 해당 기술은 통신 트래픽 부하와 서비스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안전한 하역장비의 원격제어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임
- YGPA는 '26년까지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통신 기반시설인 5G 통신망을 확대하기로 함
- 또한 국산기술을 활용한 기존의 하역장비 자동화 개조를 통해 재래식 컨테이너 부두와 자동화 부두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등 향후 스마트항만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함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1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47&category=\(2021.07.15.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47&category=(2021.07.15. 검색))

6) 다양한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각기 다른 LAN이나 부분망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함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상반기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⁷⁾

 울산항만공사(UPA)는 북신항 액체부두 건설 현장 및 항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함

-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 북신항 액체부두 건설 현장의 해상 DCM작업선박 및 배수로, 옹벽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이 이루어짐

② 울산항만공사, 항만 LED분야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승인⁸⁾

 울산항만공사(UPA)는 7월 8일 국내 최초로 항만 LED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국내 외 부사업 승인을 받음

- UPA는 기존 울산항에 설치된 나트륨, 할로겐 조명타워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으며, 연간 약 81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 앞서 UPA는 '09년 세계 최초로 LED투광등을 개발했으며, 이번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승인으로 향후 신규 수입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승인은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여건을 확보하고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01.)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618\(2021.07.1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618(2021.07.14. 검색))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08.)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622\(2021.07.1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622(2021.07.14. 검색))

- UPA는 앞으로 선박 육상전원설비(AMP)와 태양광 발전 등 울산항 내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본격 추진⁹⁾

🌿 평택시는 환황해권 중심의 자동차 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승읍 일원에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함

- 평택시의 공모 구상(안)은 자동차 관련 전시, 구매,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집적화로 신 관광, 문화 수요 창출 및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본 도요타 박물관, 독일 BMW박물관 등과 같은 명소를 만드는 것임
- 평택·당진항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 화물 처리 항만이며, 평택시에 다수의 수입차 PDI(Pre-Delivery Inspection)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수입차 대부분은 평택·당진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 이번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는 평택항과 3km 떨어져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서평택IC 인근에 위치하여 입지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모 사업(7/12~8/11)을 통해 개발 계획, 사업계획, 운영계획 등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9) 평택시 보도자료(2021.07.12.),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idx=238819&ptlidx=90>(2021.07.16.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로 울릉크루즈(주) 선정¹⁰⁾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일에 개최된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에서 울릉크루즈(주)를 사업자로 선정함

- 울릉크루즈(주)에서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 뉴시디오펠호는 총톤수 11,515톤의 일반카페리 여객선으로 여객 1,200명, 화물 7,500톤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포항~울릉 간 운항시간은 6시간 30분임
- 지난 '20년 2월 대형 여객선인 선플라워호(총톤수 2,394톤, 여객정원 920명)가 선정 만기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후 신규 선박 투입을 위한 의견 수렴까지 긴 논의가 있었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크루즈(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운항 안전성 검증을 받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운항할 수 있다고 밝힘

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7.01.), <https://pohang.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9126&boardKey=7&menuKey=435&currentPageNo=1>(2021.07.12. 검색)



7) 대산항

① 5부두 전면 준설공사 6월 24일 착공¹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24일부터 5부두 전면 저 수심 구역의 준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대산항 5부두는 '20년 말 완공되었으나, 부두 전면 저 수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두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 부두 정상화를 위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18천m³ 준설 공사시행으로 적정 수심(14.0m)을 확보하고, 접안선박의 안정성을 갖춰 5만 톤급 부두로 운영할 예정임
- 5부두는 준설공사 완료 후 '22년부터 대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1항로 일부 저 수심 구역의 준설(33만m³)을 추진해 항로 적정수심(13.0m)을 확보할 예정임

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7.01.), <https://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238&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1.07.15.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동해·묵호항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 접수¹²⁾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동해·묵호항에 등록된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임

-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 서비스 중 특정 업종 마비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체결하는 협약임
-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묵호항의 항만운영 협약 체결을 통해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동해·묵호항의 항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2) 신아일보(2021.07.13.),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258>(2021.07.15. 검색)



9) 목포항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대시설 특별점검 실시¹³⁾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7월 말까지 주요 항로상 등대시설의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임

- 목포·신안·진도·완도해역의 연안 여객선 주요 통항로와 사고 발생 해역의 항로표지시설 기능을 점검하여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항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목포·신안·진도·완도해역의 등대 56기, 등부표(부유식) 76기, 등표(고정식) 42기 등 174기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할 예정임
- 또한 목포대교와 천사대교 등 교량표지의 야간 점검을 시행하여 야간 통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 목포청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복구 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뱃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7.0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2069>(2021.07.12.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비상사태 등에 대비를 위해 항만기능 유지업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함¹⁴⁾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 업종의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 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 공급업 등 5개 업종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이 체결된 업체는 시설 사용료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며 비상시 군산항의 물류 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중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님
- 신청서 확인 및 평가를 거쳐 '21년 9월 5일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하고, 항만 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임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7.13),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2120>(2021.07.15.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상하이 국제 항만그룹(SIPG), 중앙 집중식 원격 제어 프로젝트 개시¹⁵⁾

- 📌 지난 6월 25일 SIPG는 NeZha 테크놀로지와 화웨이의 지원을 받아 중앙 집중식 원격 제어 프로젝트인 'Smart Command and Control Center Project'를 개시함
 - 해당 프로젝트는 항만의 중앙 집중식 원격 제어를 위해 광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차세대 스마트 항만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임
 - SIPG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운송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항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도 제14차 5개년 계획의 일환임
- 📌 프로젝트에 적용된 광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스마트한 항만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함
 - 기존 네트워크 대비 광네트워크는 향상된 대역폭, 짧은 대기시간, 높은 안정성 등을 가지고 있음
- 📌 원격 제어 기술은 양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4단계에 적용되며 센터는 양산항과 100km 이상 떨어진 상하이 시내에 위치함
 - 상하이 시내에서 원격 조정을 통해 양산항 4단계 크레인에 대한 명령 및 제어가 수행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통근 시간 단축 및 직원 가용성 향상 등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또한 SIPG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극한 기후 조건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터미널 비상 대응을 통해 365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임

② 옌텐항, 항만 정체 개선¹⁶⁾

- 📌 중국 옌텐항의 항만 정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규제가 풀리면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
 - 옌텐항은 지난 5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6일 동안 폐쇄한 후 6월 24일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항만 정체 등 물류 대란이 발생함

15) Hellenicshipping News(2021.07.07.),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huawei-and-shanghai-international-port-group-launch-centralized-remote-control-project-for-smart-ports/>(2021.07.16. 검색)

16) Hellenicshipping News(2021.07.09.),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port-of-yantian-productivity-rapidly-improves-but-export-delays-persist/>(2021.07.16. 검색)



☞ 연토히의 야드 점유율은 65%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항만 생산성은 정상수준의 85%까지 향상됨

- 물류대란이 심각하던 6월 말에는 40척 이상의 선박이 정박 대기 중이었으며 터미널 생산성은 45%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적체된 화물이 많아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등을 앞둔 배송 성수기인 8~9월 수출 물량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또한 중국 내 물류업체들은 연토히의 혼잡으로 인해 창고와 생산시설에 적체된 화물을 처리하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7월 1일 기준 평균 체류 시간은 수출의 경우 12.9일, 수입의 경우 4.2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수출 화물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 아시아

①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만공사(Chittagon Port Authority: CPA), 수출 화물의 적체 해소를 위해 4척의 피더선박 추가 투입¹⁷⁾

☞ CPA는 치타공항만의 ICD(Inland Container Depots)내 화물적체량을 감소하기 위해 치타공항~콜롬보항 노선에 1,000~1,100TEU급 4척의 선박을 신규 투입함

- 치타공항만의 적체된 컨테이너는 약 15,300TEU로 이중 약 70%는 콜롬보항으로 운송되는 머스크 라인의 물량임
- 머스크가 자사의 선박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운송예약물량을 늘림에 따라 치타공항내 ICD의 화물적체가 발생함
-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나 수출업 협회는 원활한 컨테이너 운송을 저해하는 위와 같은 요인들을 화주들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
- 이에 CPA는 지난 7월 12일 2척(1,000TEU급, 1,100TEU급)의 신규 컨테이너 선박 투입을 승인했으며, 해당 선박은 7월 19일부터 치타공항~콜롬보항의 항로에 취항 할 예정임
- 신규투입되는 4척의 피더 선박 운송량은 5천 TEU로 치타공항 내 적체된 컨테이너화물 조기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17) Container News(2021.07.14.), <https://container-news.com/four-new-container-vessels-in-chittagong-colombo-route-to-lessen-export-backlog/>(2021.07.15. 검색)



② 일본 무로란항, 북극항로를 통한 수소 수입에 주목¹⁸⁾

일본 북부에 위치한 무로란항은 북극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그린수소 운송을 중심으로 일본 내 수소 허브를 목표로 함

-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무로란항에 일본 정유회사인 에네오스(Eneos)의 옛 정유공장 부지를 수소 거점으로 개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함
- 무로란항은 일본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의 무로란 공장 등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항만으로, 무로란시는 폭넓은 제조업 기반과 기존 물류인프라를 토대로 '50년까지 수소 수입 및 공급 허브로 개발하겠다'는 장기비전을 설정함
- 무로란시는 대형선박 기항이 가능하고 러시아와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극항로를 따라 그린수소를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무로란시는 지난 5월 31일에 수소 허브 개발과 수소 벙커링 운영 등 탄소 중립적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31개 기업과 위원회를 구성함
- 무로란항은 일본 내에서 수소 및 암모니아 산업 개발에 있어서 요코하마항과 고베항에 뒤이은 3번째이나 기존 항만들과 달리 북극항로를 적극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또한 무로란시는 현재 영국에서 수소 및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허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에버딘과 수소협력협정을 체결함

③ 인도 남부~북유럽 직항로 개설¹⁹⁾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가 인도 남부~북유럽 직항로를 개설함으로써 그간 해외환적에 의존해오던 인도 남부의 공급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올해 8월부터 인도 남부의 첸나이항 인근 엔노어(Ennore)항에서는 매주 8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ME7 항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기항지는 엔노어(Ennore), 콜롬보(Colombo), 살랄라(Salalah), 알헤시라스(Algeciras), 펠릭스토우(Felixstowe), 로테르담(Rotterdam), 브레머하벤(Bremerhaven), 제다(Jeddah), 살랄라(Salalah), 콜롬보(Colombo), 엔노어(Ennore)임
- ME7을 통해 자동차 수출, 소매 수요, 기타 제조부문을 중심으로 한 엔노어의 잠재된 물동량 유치 및 운송시간과 서비스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8) Argus(2021.07.08.), <https://www.argusmedia.com/en/news/2232251-japans-muroran-port-eyes-hydrogen-imports-via-arctic> (2021.07.16. 검색)

19) JOC(2021.07.16.), https://www.joc.com/port-news/international-ports/maersk-brings-direct-europe-loop-south-india-amid-transshipment-woes_20210716.html (2021.07.19. 검색)



3) 미주

① LA항·롱비치항, 항만 무공해차량 인프라 구축에 2,500만 달러 유치²⁰⁾

LA시와 롱비치시는 그린 뉴딜 목표 달성과 산페드로만의 청정대기실행계획(CAAP: Clean Air Action Plan)을 위해 2,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함

-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무공해 기술, 재생 에너지 보관, 에너지 관리 인프라 및 공공 충전소를 지원하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의 투자로 이루어짐
-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폭스바겐의 자회사이며, 미국 정부와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무공해 차량 투자사업(California Zero Exhaust Vehicle Investment Program)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대중교통의 전기화 등 인프라에 집중하여 LA와 롱비치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LA항은 '30년까지 배출제로의 화물처리 장비를 구입하고 '35년까지 배출제로의 트럭을 보유하는 등 배출제로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 Los Angeles Daily News(2021.06.29), <https://www.dailynews.com/2021/06/29/la-long-beach-get-25-million-investment-for-zero-emission-vehicle-infrastructure-at-ports/>(2021.07.16. 검색)

4) 유럽

① 앤트워프항, 코로나19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 향상²¹⁾

앤트워프항은 코로나19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21년 상반기의 물동량이 전년 동 기간 대비 5% 증가했음을 발표함

- 코로나19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20년 대비 4.3% 증가를 기록하였고, 이외 에도 브레이크 벌크화물 41.2%, 철광석 37.8%, 자동차 22%, 건화물 4.5%, 액체화물 1.3% 등 대부분의 화물 품목에서 물동량 증가를 기록함
- 또한 올해 초 시작된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과 영국 간 전체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앤트워프항 의 경우 영국과는 11.1%, 아일랜드와는 12.1%의 물동량이 증가함
- 앤트워프항 관계자는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영국과의 단거리 해운 연결성을 강화했던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앤트워프항이 유럽과 영국 및 아일랜드를 잇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21) Port of Antwerp(2021.07.09.), <https://newsroom.portofantwerp.com/port-of-antwerp-experiences-growth-in-first-half-of-year> (2021.07.12.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파푸아 뉴기니 항만 개발을 위한 MOU 체결²²⁾

✎ 호주 정부는 파푸아 뉴기니 항만 기업(Papua New Guinea Ports Corporation, 이하 PNG)과 파푸아 뉴기니 항만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PNG는 파푸아 뉴기니 정부를 대표하여 항만 시설 제공 및 운영을 하는 국유기업으로 해당 MOU는 PNG의 30년 항만 개발 마스터 플랜에 호주 정부가 약 11억 PGK(4억 AUD)를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호주는 파푸아 뉴기니의 주요 항만 리뉴얼 및 업그레이드 지원에 대한 요청에 꾸준히 응하고 있으며 해당 MOU를 통해 포괄적 전략 및 경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호주 정부는 최근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 Motukea International Terminal의 안전 및 보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TSP(Transport Sector Support Program)을 통해 총 1,000만 AUD의 자금을 지원함²²⁾

22) Port of Australia(2021.06.30.), <https://www.portsofaustralia.com.au/blog/png-ports-corporation-australia-and-png-sign-memorandum-of-understanding-signaling-partnership-to-prepare-png-port-investments>(2021.07.16. 검색)

23) PNG Bulletin(2021.07.08.), <https://thepngbulletin.com/news/k26-million-for-png-ports-safety-and-security-upgrade-for-motukea-international-port/>(2021.07.16. 검색)

6) 아프리카

① DP 월드, 소말리아 베르베라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²⁴⁾

✎ 지난 6월 24일 DP 월드와 소말리아 정부는 베르베라 경제 특별 구역에 위치한 베르베라항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정식 개장함

- 신규 터미널은 수심 17m, 부두길이 400m, STS-갠트리 크레인 3대, RTG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음
- 신규 터미널 개장으로 베르베라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기존 15만 TEU에서 50만 TEU로 증가함

✎ DP 월드는 베르베라항 개발 및 확장을 위해 총 4억 4,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해당 신규 터미널은 전체 2단계 사업 중 1단계에 포함되며 현재 2단계 확장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 1단계에 포함된 원스톱 서비스 센터는 현재 건설 중으로 올해 3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2단계 확장을 통해 부두길이를 400m에서 1,000m로 확장하고 7개의 STS 크레인 추가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 2단계가 완료되면 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박 2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말리아 대통령은 현재 베르베라항의 해안을 따라 개발 중인 경제 특별 구역과 확장된 항만의 통합으로 교역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소말리아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4) Seatrade Maritime News(2021.06.28.),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dp-world-and-somaliland-open-new-terminal-berbera-port/>(2021.07.16.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선 운항 정시율 2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²⁵⁾

- ✎ '21년 5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항 정시율이 전월 대비 0.3% 하락한 38.8%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올해 3월 기준 9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6%p 낮은 수준임
- ✎ 특히 지난해 하반기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시행 및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화물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시율이 크게 낮아짐
- ✎ 또한 이런 수요 급증과 함께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 사고와 5월 말 중국 연토히안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항만 폐쇄 등이 발생하면서 정시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올 하반기에도 정시율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14개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항 정시율을 살펴보면 함부르크수드, 하파로이드, 짐라인, MSC를 제외하고 10개 선사들은 전월 대비 정시율이 하락함
- 전월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선사는 완하이라인(-14.0%p)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국적선사인 HMM은 소폭 하락한 32%를 기록함

25) 코라이워핑뉴스(2021.07.1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0925(2021.07.16. 검색)

2) 양곡

① 6월 주요 곡물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상승, 콩 수입단가는 식용과 사료용이 상반된 추세를 보임²⁶⁾

- ✎ 밀과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식용과 사료용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채유용 콩의 가격은 전월 대비 2.4% 상승, 대두박(사료용)의 수입단가는 전월대비 2.2% 감소함
- 6월 밀(식용)의 수입단가는 톤당 316달러로 전월 대비 3.9% 상승, 옥수수(식용)와 채유용 콩의 수입단가도 각각 전월 대비 4.1%, 2.4% 상승한 303달러, 502달러를 기록함
- 사료용 밀(톤당 269달러)과 옥수수(톤당 246달러)의 수입단가는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2%, 0.1% 소폭 상승한 반면 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2.2% 하락한 톤당 468달러를 기록함

26)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7월호(2021.06.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35/page/1(2021.7.15. 검색)



② 6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 전월대비 5.4% 상승한 150.8 기록²⁷⁾

☞ 겨울밀 수확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기상여건 개선, 대두유 가격하락 등에 따라 6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5.4% 하락함

- 달러강세와 겨울밀 수확 예정에 따른 계절적 가격 하방압력에 따라 6월 밀의 선물가격은 톤당 246달러로 전월 대비 5.7% 하락함
- 옥수수의 6월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4.1% 하락한 톤당 263달러를 기록, 세계 주요 옥수수 생산자인 미국 중서부지역의 기상 여건 개선 기대감 등이 가격 하락 요인임
- 당초 국제 곡물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미국 콩 기말재고량(20/21년) 발표와 대두유 가격 하락 전망에 따라 6월 콩의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6.2% 하락한 542달러/톤을 기록함

27)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7월호(2021.06.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35/page/1\(2021.7.15.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35/page/1(2021.7.15. 검색))

3) 시멘트

① '21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1.7% 증가한 197조 4천억 원 전망²⁸⁾

☞ '21년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 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작년 부진했던 토목 수주가 증가하고 주택/비주택 건축 수주가 모두 양호하여 95조 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반면, 하반기는 금융 및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을 받아 작년 급증한 건축 수주가 감소하는 등 조정될 전망이다.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102조 1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다만, 하반기 감소에도 전체 건설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19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1년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3.6% 증가하는 등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21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68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연속 기록했던 감소세가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작년 위축되었던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회복되면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부진했던 토목투자도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2021.07.05.),
[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2021.07.16. 검색\)](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2021.07.16. 검색))



4) 모래

①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골재수급 개선대책 확정²⁹⁾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함

-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쓰이는 모래와 자갈을 의미하며, 국토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및 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또한,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문제,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문제 등 신도시 건설시 논란이 되었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임
- 국토부는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품질 검사 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으로 품질관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며, 골재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 등 공급체계를 개선할 예정임

-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워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
- 또한,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한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규모 상향,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품질검사 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의 품질관리제 개선을 통해 반복적인 품질논란을 해소할 계획임

- 현재의 미흡한 품질관리 방식은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하고, 바다골재,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여 불합격 골재는 판매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할 계획임
- 또한,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감사실태와 골재업체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부문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임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및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 등을 통해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급 불균형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현재 채취 중인 바다골재 허가종료(충남 태안: ~'21년 10월, 인천 옹진: ~'22년 9월, 서해EEZ~'25년 9월)에 따른 골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

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6.2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704\(2021.07.16. 검색\)](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704(2021.07.16. 검색))

5) 석탄

① 인도네시아,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석탄공급 차질 우려³⁰⁾

☀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 및 중국의 하절기 발전수요 확대 등으로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함

- 인도네시아의 '21년 1~6월 석탄 수출량은 1억 5,92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 급감 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중소 탄광의 폐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또한 인도네시아 주요 산탄지인 칼리만탄 지역의 지속적인 강우와 더불어 광산업체들의 현장 인력 축소 및 선박입항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로 석탄 공급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21년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 목표는 6억 2,500만 톤으로 전년 5억 5,500만 톤 대비 크게 상향되었으나, 생산량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함

3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7.19.),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7.19.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로 철광석 가격 하락³¹⁾

☀ 건설 산업의 비수기인 장마 및 폭염 시기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가격 모니터링 및 불법 투기 단속 발표로 인해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함

- 6월 29일 기준 62% Fe 분광의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가격은 전일 대비 2.88% 하락한 톤당 212.33달러를 기록함

☀ OCBC은행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향후 6개월 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전망 이지만 중국 기업의 철광석 비축으로 인해 톤당 250달러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고 분석함

3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7.01.),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7.12.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달러가치 상승에 따른 하락세 기록³²⁾

☀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속 테이퍼링 조기추진 가능성 등의 우려로 비철금속 하방압력이 발생함

- 미국의 6월 물가상승률은 '08년 8월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미연준의 테이퍼링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달러가치가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 또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7.9%로 기저효과 약화 및 원자재 가격인상 요인 등으로 시장전망치 대비 0.2%p 감소하여 가격하방요인으로 작용함
- 동의 경우 중국의 22개 제련소의 6월 생산량이 약 75만 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 했으나,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금년 상반기 동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하면서 하방 압력이 발생함

32)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7.19.),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7.19. 검색)

8) 목재

① 목재 압축연료 품질분석 방법, 국제기준에 맞춰 제정³³⁾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 등 고품 바이오연료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고품 바이오연료 분석방법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함

- 고품 바이오연료는 열 또는 전기 생산을 위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형 목재제품이며,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등이 있음
- 기존의 고품 바이오연료 한국산업표준은 목재펠릿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분석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 품질관리가 필요한 산업 현장의 표준 활용이 어려웠음
-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표준 13종은 시료채취 방법부터 유해물질 분석까지 고품 바이오연료의 품질분석을 위한 방법을 국제기준(ISO)에 맞추어 상세하게 제시함

 이번에 제정된 고품 바이오연료 한국산업표준(KS)은 품질분석 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고품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료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국내 고품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급속히 성장하는 고품 바이오연료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제정으로 고품 바이오연료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3) 산림청 보도자료(2021.07.15.),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0860&bbid=BBSMSTR_1036&pageUnit=10&pageId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Writer=&searchWo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7.1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0860&bbid=BBSMSTR_1036&pageUnit=10&pageId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Writer=&searchWo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7.16. 검색))

9) 고철

① 일본산 고급-저급 스크랩 수입 가격, 양극화 심화³⁴⁾

 고급 스크랩 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저급 스크랩과의 양극화가 심화됨

- 대표적인 고급 스크랩 품목인 신다찌(생철)와 저급 스크랩 대표 품목인 H2의 가격 격차가 톤당 16,500엔까지 벌어져 통상 수준인 3~4천 엔의 4배 이상으로 증가함

 신다찌를 비롯한 고급 스크랩 가격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스크랩 수요 증가와 글로벌 자동차 감산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현대제철은 7월 9일 일본산 스크랩 입찰에서 신다찌 비드 가격을 FOB 기준 64,500엔으로 제시하여 지난주 시황 단가 대비 2천 엔, 2주 전 대비 7,500엔을 인상함
- 자동차 감산과 탄소중립 이슈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반면 저급 스크랩 대표품목인 H2의 가격은 증가세가 줄어들며 FOB 기준 48,000엔에서 동결함

- 신다찌와 달리 H2는 일본 내수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완화되었고 주력 수출처인 베트남과 한국의 제강사들도 구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34) 스크랩워치(2021.07.12.),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7\(2021.07.13. 검색\)](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7(2021.07.13. 검색))

10) 철재

① 국내 철근업계, 수급 안정화 위해 최대 생산 체제 유지³⁵⁾

☀ 국내 철근업계가 건설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심화된 수급난을 안정화하고 수요업계에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제품 생산을 최대화하고 있음

- 국내 철근업체들은 연초부터 시중 제품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생산 체제를 구축함
- 올해 1~4월의 경우 국산 철근 판매는 약 31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나 생산은 약 32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음
- 제품 수급 대란이 심화된 5월 이후에는 여름철 설비 보수 기간을 연기 및 축소하거나 철근 외 다른 제품 생산을 최소화하여 철근 생산에 집중하는 등 철근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철근업계는 7~8월 비수기 기간에도 최대 생산 체제를 유지할 계획으로 국내 철근 수급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됨
- 한편 중국의 철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이후 중국 정부가 수출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반기 물동량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공존함
- 5월 톤당 140만 원에 이르렀던 국산 철근 유통가격은 7월 초 톤당 110만 원 이하로도 내려 가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임³⁶⁾

35) 철강금속신문(2021.06.28.), <http://www.steel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1>(2021.07.13. 검색)

36) 스틸IN(2021.07.11.), <http://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765>(2021.07.13. 검색)

11) 자동차

① '20년 한국 수입차시장, 독일 1위, 미국 2위 기록³⁷⁾

☀ 미국차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이 확대되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 '20년 미국계 자동차는 수입차 시장에서 4만 6천 대(15.2%)를 판매하며, 2만 1천 대(7.0%)를 판매한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를 제치고 독일계(61.9%)에 이어 2위 차지함
- 일본계 브랜드 판매량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19년 8월) 영향으로 2년 연속('19년, '20년) 감소한 반면, 미국계 브랜드 판매량은 한-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철폐('16년)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함

(단위: 천 대, %)

주요 국가별(브랜드)
한국 시장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국 가	'13	'14	'15	'16	'17	'18	'19	'20
독일 (비중)	107 (66.0)	138 (62.8)	169 (59.4)	140 (52.8)	134 (50.9)	155 (53.1)	148 (54.0)	187 (61.9)
미국 (비중)	12 (7.6)	15 (6.9)	24 (8.4)	32 (12.2)	26 (10.0)	31 (10.7)	33 (12.0)	46 (15.2)
일본 (비중)	22 (13.8)	24 (11.1)	30 (10.5)	36 (13.6)	44 (16.7)	46 (15.7)	37 (13.6)	21 (7.0)
기타 (비중)	20 (12.6)	42 (19.2)	62 (21.7)	57 (21.4)	59 (22.4)	60 (20.5)	56 (20.4)	48 (15.9)
전체 수입차	162	219	284	265	264	293	275	303

37)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6.29.),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08&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7.16. 검색)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6.29.),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08&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7.16. 검색)

☞ '20년 미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 대수는 236만 7천 대였으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6만 7천 대(2.8%)를 기록하면서 주요 수출국 9위를 기록함

- 한-미 FTA 발효되기 직전 연도인 '11년,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 대상국 중 12위였으며, 일본은 13위로 유사했으나 '20년에는 한국이 9위, 일본 22위로 격차가 확대됨
- 최근 10년, 한-일 양국 자동차시장의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한국 시장은 '11년 0.8%에서 '20년 3.5%로 4.4배 증가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도가 높아진 반면, 일본 시장은 '11년 0.3%에서 '20년 0.4%로 10년 전과 차이가 거의 없음

(단위: 대, %)

미국의 자동차 수출 대상국
순위 및 수출 대수 비교
(’11년, ’20년)

2011년			2020년		
1	캐나다	809,178	1	캐나다	703,705
2	멕시코	152,366	2	독 일	169,143
3	독 일	146,027	3	중 국	145,013
4	중 국	126,520	4	멕시코	133,487
5	사우디아라비아	106,254	5	UAE	129,685
6	UAE	41,667	6	나이지리아	124,824
7	영 국	35,162	7	우크라이나	102,598
8	호 주	28,332	8	벨기에	95,482
9	쿠웨이트	27,453	9	한 국	67,057
10	칠 레	20,395	10	조지아	45,001
11	나이지리아	14,288	11	사우디아라비아	44,305
12	한 국	13,473	12	요르단	43,331
13	일 본	13,442	22	일 본	20,660
전체 수출대수		1,727,637	전체 수출대수		2,366,553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6.29.),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08&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7.16. 검색)

☞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이 일본시장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 확대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21.3)를 통해 한국내 미국차 판매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인식이 개선되는 상황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의 이 같은 인식개선을 기반으로 양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AI 등 미래차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교차 투자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12) 잡화

① '21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44.4% 증가한 170억 5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24.1% 증가한 117억 3,500만 달러 기록³⁸⁾

📈 5월 기계 산업 수출은 조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12.4%), 미국(76.6%), 베트남(62.3%)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5월 기계 산업 수입도 전기기계업(+26.8%)과 정밀기계업(+10.2%), 수송기계업(+40.0%) 모든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임

- 국가별로는 미국(67.3%), 일본(11.0%)과 중국(21.6%)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단위: 백만 달러, %)

'21년 5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1. 5				'21. 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7,005	44.4	11,735	24.1	90,574	23.2	57,388	26.5
일반기계업	4,409	22.4	3,910	29.3	21,573	7.1	19,531	33.5
전기기계업	3,401	56.1	2,217	26.8	16,760	29.2	10,171	25.4
정밀기계업	1,477	24.6	2,268	10.2	7,809	25.1	12,687	33.2
수송기계업	6,909	66.3	2,797	40.0	40,326	33.2	12,319	17.3
조선	1,293	-14.1	182	-0.0	9,545	20.5	822	-23.7
금속제품업	808	23.9	543	-13.4	4,106	4.9	2,681	3.5

38)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7월 호(2021.07.12.),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7.15.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7.15. 검색))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품

① 롯데케미칼,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생태계 조성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 발표³⁹⁾

☀ 지난 7월 13일, 롯데케미칼은 '30년까지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탄소중립 성장과 국내 수소 수요 공급 30% 계획을 담은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 발표

-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롯데케미칼이 생산 중인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25년까지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 16만 톤을 생산할 계획임
- 또한 '30년까지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블루수소(16만 톤)와 그린수소(44만 톤)가 혼합된 6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임
- '24년에는 울산 지역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이 시작되는데 '25년까지 액체 수소충전소 50개를 전국에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30년에는 복합충전소 200개를 구축할 계획임
- 한편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 저장용 고압 탱크 개발을 통해 '25년 10만 개의 수소탱크를 양산하고 '30년에는 50만 개로 확대 생산해 수소연료의 승용차 및 상용차 적용이 목표임

39)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07.13.),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472/page/1/term_id/6/v_mode/user
 (2021.07.15.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1. 7. 26

편집·검·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